

# 정신질환자 인권, 폐쇄병동에 갇혔나

### 광주 입원환자 중 49.6% 강제입원...전남 무려 70.6% “아들 보고 싶어...” 30대 엄마 탈출하려 불질러 ‘아찔’ 인권위, 보호자 동의없이 강제입원시킨 병원장 고발도

#. 광주시 북구의 한 종합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박모(여·35)씨와 김모(여·20)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에 라이터로 병실을 불을 질렀다.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의 박씨와 간질 증세로 보이는 김씨는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들에 의해 폐쇄병동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강제입원)을 했다. 2008년 최초 입원 이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병원 생활을 오래 한 박씨는 아들(6)을 보고 싶은 마음에 병원을 탈출하기 위해 김씨와 함께 위험한 행동을 감행했다. 광주북부경찰은 22일 박씨 등을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비록 환자들이지만 불을 질러 자칫 여러 사람을 위협에 빠뜨릴 뻔했다는 판단에서다.

#. 인권위 광주사무소는 최근 한 정신보건시설 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자를 강제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도 없이 진정인을 강제입원 시켰기 때문이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자칫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면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만 있으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수년까지 강제입원을 허용하고 있다. 증세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보호자들은 간혹가 어렵다는 이유로 가족을 병원에 입원시키

고, 병원은 수익을 위해 강제입원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광주지역 정신보건시설 중 입원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22곳의 전체 입원환자 2355명 중 1170명(49.6%)이 강제입원해 있다. 또 2355명 중 1506명이 생활을 제한받는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1년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517명에 달했다. 서구 A병원의 경우 전체 입원환자 152명 모두가 강제입원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광산구 B병원의 경우는 전체 입원환자의 66.6%에 달하는 192명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강제입원 비율은 더 높았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 지난해 말에 펴낸 ‘2013 정신보건통계현황집’에 따르면 전체 5125명의 전남지역 입원 환자 중 3615명(70.6%)이 강제 입원해 있으며, 이

가운데 63.6%에 달하는 환자들이 1년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도 지역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이 잇따르고 있다. 인권위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올해 접수된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은 600여건에 달하고, 14건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입원까지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환자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입원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또 강제입원 기간이 지나 퇴원하더라도 다른 병원을 돌려 재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한번 강제입원을 한 사람들은 병원 밖으로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강제입원제도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장흥 출신 백승호 경찰대학장 승진 내정 광주경찰청장 강인철·전남경찰청장 박경민

장흥 출신 백승호(51) 전남지방경찰청장이 치안감으로 승진, 경찰대학장에 내정됐다. 광주경찰청장에는 강인철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이 승진·내정됐고, 전남경찰청장에는 박경민 중앙경찰학교장이 내정됐다.



백승호 대학장 강인철 광주청장 박경민 전남청장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경찰 고위간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이상원 경찰청 차장을 전보·내정했다. 경찰대학장에는 백승호 전남청장을 승진·임명했다. 백 경찰대학장은 금호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33회)에 합격한 뒤 1994년 경정으로 특채돼 강진시장·강원청 차장·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경기청 1차장 등을 지냈다. 치안감감 자리에는 부산청장에 이상식 대구청장, 인천청장에 김치원 경북청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교사가 조카에게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 직위해제·퇴학조치...도교육청은 파악조차 못해

여수 A고등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조카에게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교육청 등은 관련자들이 퇴학·직위해제됐음에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수 A고등학교는 B교사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기말고사와 관련, 2학년 수학 시험지를 C군에게 유출한 사실을 확인한 뒤 B교사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C군을 ‘명령퇴학’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학교측은 시험이 끝난 지난 17일 관련 내용을 신고받고 해당 교사와 학생을 상대로 조사해 시험지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학교측은 해당 교사와 학생이 친척이지만 누구의 요청으로 어떻게 시험지 유출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과 여수교육지원청에 따르면 18일 관련 사건에 대한 학교 측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학교측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학교 관리에 대한 허술함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 관계자는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뒤 교육청에 보고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5년간 5차례 홀인원 조작” 보험금 반환소송...보험사 패소



○...홀인원 축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5년간 5차례 홀인원’을 기록한 사실이 조작됐다고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임선지)에 따르면 국내 한 보험사가 ‘조모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1500만원을 돌려달라’며 조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 ○...재판부는 “5차례 홀인원을 기록하고 일부 동반자가 겹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이지만, 홀인원을 기록한 것이 조작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조씨가 홀인원을 기록할 때마다 동반자나 진행자가 달랐던 점에 비추면 이들이 공모해 기록을 조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랑의 쌀 1004포 ‘훈훈한 나눔’ 광주시 북구기독교교단협의회와 북구 직원들이 22일 오후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백미(20kg) 1004포를 트럭에 싣고 있다. 이날 ‘사랑의 쌀 1004포 나눔 행사’를 주관한 북구기독교교단협의회는 8번째 북구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백미 1004포를 전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 교사 성추행 학교, 다른 교사도 성희롱 물의

교사가 여학생의 허벅지를 깨무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광주의 한 여고에서 같은 시기 다른 교사도 수업시간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광주의 한 여고 교사 A씨가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10월부터

수업에서 배제했다. A씨는 수업시간 ‘외국은 성관계가 자유롭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성관계 여부를 묻는 등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내사중지와 별도로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게 경고 조치하고 수업에서 배제하는 한편, 방학 중에도 보충수업에서 제외하는 등 학생들과 격리하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지하철 고장

### 17분간 운행 중단

### 보조전원장치 이상 추정

전동차 고장으로 광주지하철이 운행 중단돼 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2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분께 평동행 하행선 열차 1401호가 고장으로 남광주역에 멈춰섰다. 이 사고로 열차는 17분간 남광주역에 정지했고, 뒤따르던 열차 3대도 운행을 못해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시민들은 지하철에서 나와 택시 등으로 갈아타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철도공사 측은 긴급복구반을 투입해 다른 열차로 고장 난 열차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열차를 남광주역에서 상무역까지 옮겼으며, 오전 8시22분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열차가 지상에서 지하로 이동하는 구간에서 발생한 급격한 온도변화로 전동차의 보조전원장치(SIV)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사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